

제 31 회 한일 · 일한포럼 공동성명

2023 년 9 월 1 일 서울

제 31 회 한일포럼은 2023 년 8 월 30 일부터 9 월 1 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올 해 한일포럼은 한일관계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정상외교의 상호 방문이 성사되어 12 년만에 셔틀외교가 복원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동안 중단되었던 협력이 재개되었다. 한일 정상은 5 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평화공원 내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며, 양국이 과거를 기억하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임을 확인하였다.

2 년 뒤 2025 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 주년이 되는 해이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 이 기념할만한 해를 맞이하며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공고히 하고, 국제질서의 거대한 전환기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을 발표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했다. 이를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일 국교정상화 60 주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공동 미래비전을 그리기를 기대한다.

한일 협력의 복원, 양국 국민간 호감도 및 친밀감 증대, 상호방문자의 증가 등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처리수 해양방류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처리수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 양 국민의 안전 및 안심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성있는 조치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강제징용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해법이 한일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 흐름의 원활한 추진 및 한일 역사에 대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포럼의 참가자들은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지역 및 글로벌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가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지지한다. 한일은 그 선언이 착실하게 이행되도록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중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유지와 강화에 핵심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미중 전략대립의 격화, 경제억압을 포함한 국제경제질서의 동요 등 국제정치의 현실과 지정학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정부간 대화채널을 폭넓게 제도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 경제·안보, 산업·과학·기술 분야 등의 2+2 정부간 고위정책대화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미일간 인도태평양 대화를 시작하여 지역 평화와 안정, 자유공정무역, 첨단기술교류, 공급망, 개발협력, 사이버안전 및 위조정보대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첨단 기술 영역에서 역할분담이라는 새로운 발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한일 공동 과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동시에 새로운 국제경제규범의 논의, 형성, 채택, 확산 과정에서 한일의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다. 바이오, AI, 기후변화, 양자 등 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과제를 확대하고, 인적교류 또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한일관계의 미래 기반인 차세대 교류를 보다 체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양국에서 학점을 인정받고 인턴·취업으로 연계하는 '한일판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 설립을 제안한다. 또한, 한일 우호의 상징인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물 소재지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련 자료 상호 전시를 추진하고, 2005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계기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에 양국 정상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일본 정부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지지하고,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와 2030 부산 엑스포 공동 플랫폼 구성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부산과 간사이를 연계하는 한일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상호이익(win-win)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31 회 한일 · 일한포럼 참가자를 대표하여

한국측 의장

유명환

일본측 의장

오코노기 마사오